

# '콜센터 여고생 죽음' 진상조사 나섰다

### 도교육청, 이동통신사 상대 유가족 손해소 지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강도를 호소하며 아중저수지에 투신한 여고생과 관련해 전북교육청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전북교육청은 IG유플러스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나갔던 여고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조사팀을 꾸리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꾸러진 조사팀은 현장실습과 자살과의 인과관계와 개인성을 집중 조사하고 확인될 경우 유가족이 IG유플러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직업훈련촉진법에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명시돼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로 국한했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여고생이 근무했던 LG유플러스 SAVE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의 적정성 여부와 무리한 실적압박 및 초과근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의 일체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중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22일 전주시내 LG유플러스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내 모 특성화고 졸업반의 A(19)양이 지난 1월 22일 아중저수지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이 근무했던 콜센터 'SAVE팀'은 2014년 역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김민근 기자



탄기국 "우리는 트럼프를 찬양한다" 8일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력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전북에서 탄기국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 전주시, 도시비움 프로젝트 본격화 추진

### 전화부스 등 불필요 시설물 제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전주시가 걷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해 인도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도시비움기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비움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도시비움 프로젝트는 도심 내 가로 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들을 비워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비움기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도위의 전화

부스와 가로 등 교통시설물,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도시비움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거론되는 곳은 전동성당에서 시청입구 대신증권 사거리까지 팔달로 1.3km 구간으로, 시는 전화부스 등 인도 위 29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 유사기능을 가진 인접 시설물은

통·폐합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산하 도시시설물관리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도시비움기 T/F팀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도시비움기 시범사업과 함께 한옥마을과 전복대 인근 보행상권 활성화 위해 충경로와 덕진지하보도 주변에 대한 인도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민들의 효용도에 따라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 전북경찰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지난 2월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6명으로 지난 1월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 교통 사망자의 큰 폭의 감소 원인으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포켓몬GO' 등 스마트폰 사용자의 게임 접속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운전자들의 교

통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한 홍보활동과 거리 캠페인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라며 "신학기와 행락철을 맞아 졸음운전 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해상 어선 전복 관련 선장 입건

지난달 27일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해상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해경이 어선 선장 최모(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전 출항 당시 선박 아래 좌우로 설치된 연료탱크 한쪽에만 연료가 채워져 선박이 좌측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선원들은 선장에게 연료를 옮겨 좌우 수평을 맞춘 후 출항하자고 건의했지만 선장은 이를 무시하고 출항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무시한 채 출항 한 어선은 출항 5분을 넘기지 못하고 함(港) 입구에서 뒤집혀졌고, 이 사고로 선원 김모(46)씨가 사망했다.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운항자의 과실과 안전을 외면하는 경우로 이번 사고도 선장이 선원들의 건의를 듣고 안전을 챙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선박은 사고 다음날인 28일 인양됐으며, 흘러나온 기름은 방제조치가 완료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주시 금상동 산재마을, 마을회관 건립 기공식

### 지역주민 10년 숙원 이뤄내

전주시 금상동 산재마을에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마을어르신들의 경로당 역할을 할 마을회관이 건립된다.

전주시 우아2동(동장 박숙자)은 8일 금상동 산재마을 마을회관 건립부지(금상동 355-24)에서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종철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병도 전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오정화 전주시의회 의원, 박성이 덕진구청장, 김병이 우아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승석 우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조성민 참대교회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산재마을회관 건립은 마을 주민들이 순천·완주 고속도로 건설 당시 진입로 보상금과 마을기금을 더해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한지 10여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농촌마을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끌어붙이고 민간에서 건축비와 인력을 지원키로 하면서 일궈낸 성과다.

금상동 산재마을은 총 31가구 70여명의 주민이 살고 마을로, 그간 산재마을 어르신 20여명은 이웃과 정을 나눌 마을회관이 없어 집안에서 외롭게 하루를 보내거나, 여름철에 동네 입구 정자에서 모여 담소를 나눌 뿐 바깥출입이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객체 산재마을 통장에게 전해들은 우아2동장과 신세계라이온스 김종선 회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농촌마을의 소외감과 외로운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꼭 마련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 꼬박 5개월 만에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두 마련하면서 이날 기공식을 갖게됐다.

특히, 김종선 신세계라이온스 회장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노력과 그 뜻에 동참한 김춘길 모악라이온스 회장의 결정이 마을주민 숙원의 실마리가 됐다.

실제, 신세계라이온스와 모악라이온스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각 1,600만원씩 총 3,200만원의 산재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키로 승인했다. 여기에, 주민들이 그간 정성껏 마련해온 마을기금 2,000만원이 더해져 마을회관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신세계라이온스와 모악라이온스 회원들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산재마을회관 건축에 자체 원가 투입과 인력 등의 재능기부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우아2동 소재 참대교회(담임목사 조성민)에서도 조적공 전문 기술을 가진 성도 등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장애인 위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노후주택 개·보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8일 완산구 삼전동 노후주택 개보수대상 가구 앞에서 전문 기술인력과 개보수 지원가구 가족,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후주택 개·보수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사고 없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문기술인력 2명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개보수지원단은 앞으로 노후주택의 지붕개량과 화장실 개량,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창호, 전기 등 주거안정을 위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투입된다.

시는 '2017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지난해보다 1억4,400만원 늘어난 6억4,400만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202가구에 가구당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한다.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사업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심크레 높이조절,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주택에 대한 지붕개량과 화장실 보수,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창호, 전기 등의 주택 개·보수 지원은 기존처럼 실시된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